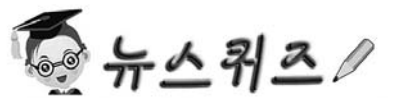




1일 오후 광주시청 앞 분수 광장을 지나다 재미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와 카메라를 움직였습니다. 흠뻑 젖은 아이들 옷을 훌렁 벗긴 아빠가 가지고 나온 우산을 펼쳐 올려놓더군요. '어디에서 말릴까' 생각하던 아이들도 아빠의 기발한 생각에 박수를 치더군요.

뉴스퀴즈 81·82회 정선숙씨 1등
광주일보가 실시한 81·82회 뉴스퀴즈 추정 결과, 정선숙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83. 최근 이 나라 반정부 시위대 수만명이 가두행진을 벌이는 과정에서 당국의 강제진압으로 시위대 수십여명이 숨지는 등 유혈시대가 벌어졌습니까.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물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삼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도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I love MY student



한연자

씩씩 잘라나간 듯한 앞머리에 머리카락을 양갈래로 묶어 '삐삐'를 연상케 하는 이 아이를 만난 것은 단급 분교장에 부임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을 때다.

희망의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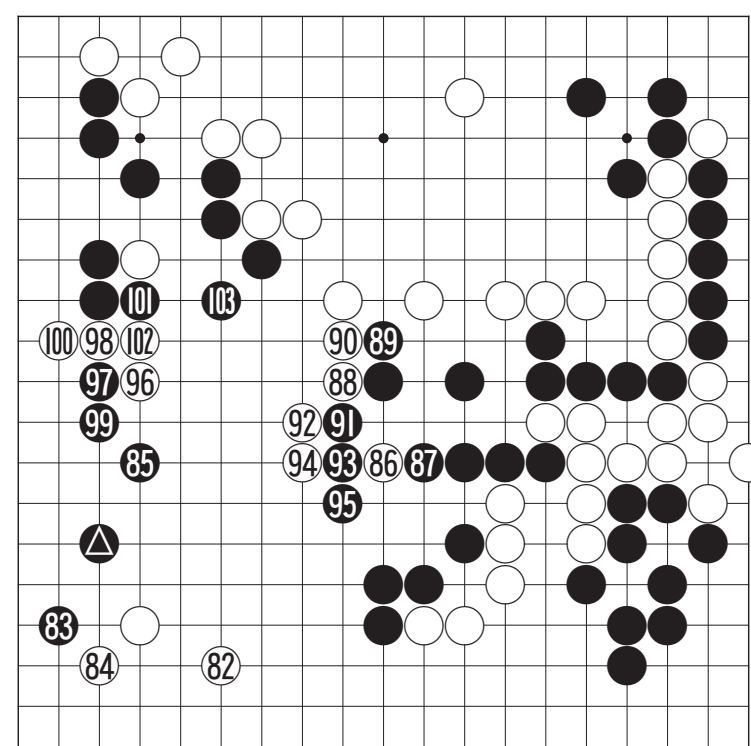
분교장은 아주 작은 섬마을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다. 학기 초 자신의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초로의 할아버지께서 손녀에게 안경을 써워주시지 못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두어차례 학교를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찾아오는 이가 전혀 없는 곳이다.

받은 듯 했다. 이렇게 된 데는 분교장의 유일한 방문객인 아이 할아버지가 두어차례 학교를 다녀간 뒤 아이의 심각한 시력 문제와 목젖이 없는 문제 등의 사연을 한국복지재단 도움요청 게시판에 올린 것이 계기가 됐다.

어장가가 단기간에 좋아지지 않는다는 우려로 방송을 통한 도움은 어렵지만, 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수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수술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일(음 8월 22일 금)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October 2nd, featur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제16회 광일배 개인전 결승국
우변의 접전에서 승기를 잡은 박정규 5단의 기약양하게 흑▲로 걸쳐가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다. 이창준 5단으로서는 흰가 반격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데 흑이 워낙 두터운 형국이다.

바둑소식
이창준, 10월 랭킹 1위 지켜
이창준 9단이 1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국내 프로기사 10월 랭킹에서 3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Spot for '굿모닝 잉글리쉬 <1002>' offering English lessons and apartment search assistance.

Spot for '오하오우 니혼고 <1002>' featuring Japanese language instruction.

Spot for '니하오 퉁구워 <192>' providing information on visas and Korean-English translation.

Spot for '한자 이야기 <619>' focusing on the history and usage of Chinese characters.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for skin treatment.